

수원 15일 경희21 대축전

단대 풍물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서울 오늘부터 가을학술문화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자주 학원에서 학원공통체로 경희 21 대축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15일 개막식과 도서 판 광장 이름 발표, 16일은 '단대의 날'로 각 단대에서 가요제 및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오후 6시부터는 공동 운동장에 설치된 중앙 무대에서 락페스티벌을 연다.

17일에는 14일부터 진행된 체전의 결승전이 치러지고 오전 10시부터 외대 민주광장에서 풍물제가, 오후 4시에는 중앙무대에서 육체미, 골체미 대회가 열린다.

18일은 축전 마지막날로 폐막식을 비롯하여 체전우승팀 시상, 경희 가요제 결선, 확대 운영위원회 인사, 경희21강좌가 오후 6시부터 중앙무대에서 진행된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동연)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오는 14

일부터 동아리행사를 개최한다. '찰리 브라운'이란 제목으로 제작된 8mm영화를 빛사냥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상영되며, 록그룹 '로드'의 공연이 18일에 만화통신 동아리의 '공각기동대'상영을 20일에, 비나리 공연이 24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오늘부터 4일간 '가을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종교분과, 학술분과, 체육분과, 공연분과, 전시·창작분과, 봉사분과 등으로 나뉘어져 각종 행사를 준비, 선보이게 된다.

먼저 종교분과에서는 오늘 오후 6시 노천극장에서 경희간호전문대 성가대와 GLEE의 합창, 예수전도단의 드라마, 가수의 노래와 이야기 및 SFC의 스트리 노래 등을 공연하며 학술분과 KALA는 오는 9일 오후 6시 정경대 강당에서 교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 증대 사업으로 "LISTENING CONTEST"를 실시한다.

체육분과에서는 문화제 기간 중 행글라이딩 및 훈련사진 전시회를 노천극장 주변에서 선보이며, 대운동장에서는 BAVES가 단대별 경연리그 결승전을 갖는다.

또한, 오는 9일 오후 8시20분부터 1시간동안 공연분과인 탈춤단의 공연이 노천극장에서 있을 예정이며, 전시·창작분과에서는 생활미술 미술동아리 한그림, 서도희의 작품들을 문화제 기간 중 노천극장 주변에 전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봉사분과는 농촌 봉사의 일환으로 문화제 기간 중 청기면에서 생산된 고추 등을 봉사동아리 '상록'의 주최로 노천극장 주변에 우리농산물 장터를 열어 판매한다.

그 외에도 동연은 오는 10일 오후3시부터 노천극장에서 갖게 되는 'ALTERNATIVE의 날' 행사에서 언더펍킴, 얼터너티브록밴드 학내 록동아리 등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신세대적 감수성에 기반한 음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가을대축전은 중간고사 후 이달 말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광선 강남이 기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 학습도우미 김연임 양 외국인 한글공부를 돕는 '봉사꾼'

인터뷰

언어교육연구원은 한국어 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학습도우미제도를 두고 있다. 학습도우미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연습 및 캠퍼스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학교의 자원봉사자들을 말한다. 몽고에서 온 수블드라는 학생을 돕고 있는 김연임(영교 1)양을 만났다.

—도우미 활동의 장점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다. 그들의 문화적 교감을 통해 얼굴이나 피부색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도우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주 2회정도 만나 수업시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일기를 매일 쓰도록 해 받침이나 어법 등을 고쳐준다. 그러나 주로 대화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말문을 트게 해 준다.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견학은 비용 부담이 커 쉽지 않다.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짧은 문장으로 된 시를 읽게 한다. 외국학생들이 '한국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했을 때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어려운 부분은

조사 사용부분이다. 조사를 잘못 붙이거나 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임말 사용의 복잡함이나 '파랗다. 퍼렇다' 등의 미묘한 어감 차이는 특히 애를 먹는다.

마지막으로 김양은 "학습도우미를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말을 배우는 것을 순수하게 돕는 봉사자들"이라며 "외국인을 외국어 습득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영준 기자>

사회대모의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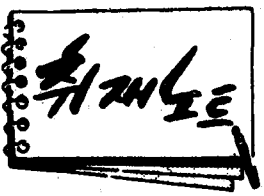
'모의 국무회의'가 사회대 행정학과 학생회 주최로 오는 11월4일 학생회관 2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는 행정학과가 사회과학부로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의 개척여부가 불투명하다.

8일 NAKED공연

서울캠퍼스 그룹사운드 동아리인 네이키드의 제9회 정기공연이 오는 8일 오후6시에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동아리 가을 학술 문화제를 맞아 Pump up your voice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 동아리 공연이며 TEXAS, HELI, 캠프리지가 협찬했다.



숨겨진 1인치

◇...1인치 숨겨진 보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1인치 숨겨진 보도'가 있다하여 노트를 그 숨겨진 1인치를 찾아보시.

언론이 공비출현 보도에 지나치게 치우쳐 나랏님들에게 불리하도록 작용될지 모르는 문제들은 축소보도되고 있다고

가려주기 보도로 나랏님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언론은 언제쯤 '천정주의'에서 해방될런지?

◇...발행 / 안준근

고향품 鄕情을 일만에 가시가 돌렸다는 말이 있어 무슨 소리인가 알아보니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주 월요일 시작된 중앙도서관 내부공사 관계로 도서관측이 1주일 내내 학생들의 출입을 일일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도서관 발전도 좋긴 하더라도 그 길었던 여름방학이 학교 어른신들에게 그리도 짧았나보요

서울 마을버스 운행 난항 주민들 반대 증차 지연

지난 9월1일 개통된 회기역-경희의료원간의 마을버스 증차가 회기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 마을버스는 개통 이후 하루 약 4천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어 현재 운행하고 있는 16인승 버스 3대로는 수송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마을버스의 운행을 담당할 우리운송(주)측은 동일차량 1대를 증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회기동 상인연합회(상인회)및 주민들의 반대로 증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운송(주) 대표이사 박양근씨는 "상인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상인들은 서비스 개선 등으로 상업적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집단적

반대 행위는 상인연합회의 이기적 발상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회기동 상인회 회장 배은섭씨는 "마을버스 운행에 배운 배운 이유 중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마을버스의 개통은 회기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반대 행위는 당연하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회기동 주민 2천4백여명이 이미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 반대되사를 밝힌 지금에,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더이상 마을버스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는 배씨는 "운송회사와 주민들간의 문제를 조정해 주어야 할 동대문 구청측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더욱 속수무책이다"라며 구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밝혔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우리운송의 증차의지와 팽팽히 맞서 있는 이상, 단기일내에 마을버스가 증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학협력 추진위 구성

수원캠퍼스 '산학협력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구성되어 기업 장학금 유치, 연구비 지원, 순수한 연구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추진위원회는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수행,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학술회의와 강연 및 학술지의 간행을 통한 학술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학협력 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장환(건축) 수원캠퍼스 부총장이, 임원으로는 정성진(화학)기획관리실장, 김원규(우주)연구처장, 한대룡(유전)교수, 허유(생물)교수, 진용옥(전파)교수, 조계선(식품)교수, 강정모(무역)교수, 박경석(기계)

교수 등이며 첫회의는 이번 주중에 있을 예정이다.

15일 경희 철인3종경기

'제5회 경희 철인 3종경기 대회'가 체과대 주최로 오는 15일 캠퍼스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마라톤 5km, 사이클 5km, 산악마라톤 5km등이며 모든 경기는 캠퍼스내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체과대 학생회로 하면 되고 단체(5명)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개인은 3천원, 단체는 5천원이며 사항은 남자부와 여자부, 단체부로 나누어 실시한다.

총학 고창으로 가을 농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학생자치권 수호와 식음료 수입 저지를 위한 '가을 농촌활동(농활)'을 다녔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농활은 우리 학교 학생 1백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고창에서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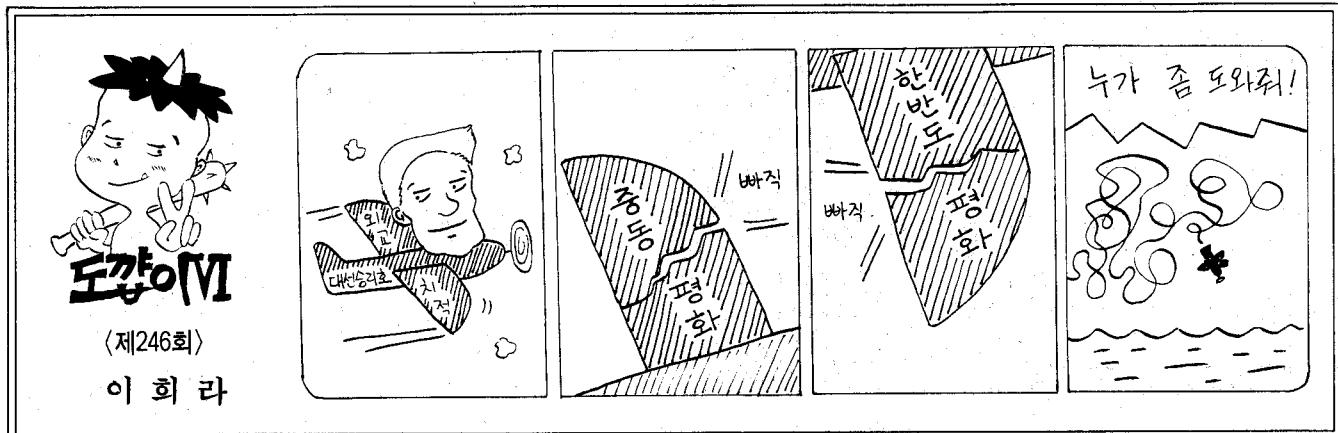
93년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농활, 94년 수입개방저지와 한 반도 평화정착을 결의하는 농활 그리고 의료보험 통합과 농정개혁 7대 과제 정취를 위한 95년 농활에 이어 의료보험통합과 쌀 직접지불제도 정취를 위한 이번 96년 농활까지 지난

4년간 실시된 고창에서의 농활은 이번 가을농활이 마지막이다.

법대 민사모의재판

법과대학 민사법학회에서는 오늘 정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29회 민사모의재판'을 연다.

'원하지 않은 아이는 손해인가?'라는 주제로 개정되는 이번 모의재판은 개회, 인사말, 축사, 연극(사안설명), 개정, 변론, 휴정, 판결, 강평, 시상, 폐회 순으로 진행되며 의료과외 소송을 다룸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正道경영·초우량LG

도약 2005



나의 본적은 지구市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② 글로벌 인재 육성 편

LG는 '로컬 매니저'에서

'로컬 비즈니스 리더'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에 걸친

3단계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각과 능력을 지닌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맨으로

클 수 있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TEL: 3773-2185 FAX: 3773-0588

LG는 양과 질 모두 최고를 이루어, 최고의 고객만족 브랜드를 만들어, 최고의 보람있는 직장이 되기 위한 도약 2005의 실현 사업중 하나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